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

- 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rital Conflict, Child-rearing Stress and Affection
- Rejection Parenting for Mothers of Preschooler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민 하 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 교수 이 영 미***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Young-Mi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marital conflict, child-rearing stress, and affection-rejection parenting for mothers of preschoolers. The subjects were 208 mothers who lived with at least one preschooler in Daegu or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ingle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5.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thers' marital conflic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ffection parenting. However, the negative influence of mothers' marital conflict on affection parenting was mediated by child-rearing stress.

(2) Mothers' marital conflic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jection parenting. However, the positive influence of mothers' marital conflict on rejection parenting was partially mediated by child-rearing stress.

▲주요어(Key Words) : 애정적 양육행동(affection parenting), 거부적 양육행동(rejection parenting),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자녀 양육 스트레스(child-rearing stress)

I. 문제제기

자녀 양육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일반적 또는 보편적 태도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Pettit, et al., 1997; Rohner, et al., 2005). 특히 생애 초기 아동이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은 Symonds(1939)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수용-거부, 지배-복종으로 초기 유형화된 이후로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Rohner et al., 2005). 1930년대와 40년대는 Baldwin(1948)의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주 저 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 교신저자 : 이영미 (E-Mail : selfdis@hanmail.net)

양육행동을, 1950년대와 60년대는 Schaefer(1959)의 양육행동과 Baumrind(1967)의 양육행동, 그리고 1970년대는 Rohner (1975)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양육행동이 유형화되었지만 지지, 격려, 사랑, 수용, 온정, 존중을 의미하는 애정과 수용적 측면의 결여, 냉정, 적대감, 공격, 무관심, 방임, 소홀을 의미하는 거부 양육방식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김성일, 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 부족과 거부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성일, 1996; Pettit et al., 1997)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방해하고 거부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변인 규명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애정적 양육행동이란 수용적 또는 지지적 양육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 헌신적이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양육행동을 말한다(Pettit et al., 1997; Rohner et al., 2005). 거부적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무시, 거부,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각각 미치나 그 효과는 아동의 적응 영역에 따라 상대적이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나 사회적 기술의 부족, 비행 청소년과의 어울림에는 거부적 양육행동이 애정적 양육행동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et al., 2001; Pettit et al., 1997; Rohner et al., 2005). 그러나 아동의 학업 성취에서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거부적 양육행동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Dornbusch, et al., 1987; Pettit et al., 1997). 이와 같이 양육행동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은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 역시 양육행동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명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어머니가 가정 환경으로부터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든 거부적이든 어머니의 적응적 양육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인 부부갈등과 자녀로부터 지각되는 스트레스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일상의 생활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대표적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다(강희정, 2003; 신숙재, 1997; 전경규·김교현, 2003; 최정미·우희정, 2004).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삶의 동반자이면서 양육행동의 주 지지인 배우자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대상인 자녀로부터 지각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받고 있음이 보고(안지영, 2001; 이주옥, 2008; 이주리,

2008; 장희정, 2005;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Ritchie & Holden, 1998; Whipple & Webster-Stratton, 1991)되고 있다.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인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거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 외에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인 부부갈등 역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장진아·신희천, 2006; 정미경·김영희, 2003; 이경남, 2004; Buehler, & Gerard, 2002; Dadds & Powell, 1991; Davies & Cummings, 1994; Fincham Grych, & Osborne, 1994)되고 있다.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교환하는 부정적 차원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Strauss, 1979)인 부부갈등의 경우 갈등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갈등 유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부부갈등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유발 요인(Fauber & Long, 1991; Harold & Conger, 1997)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적응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각각 연구되고 있지만, 가정 환경 맥락에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 모두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상의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을 규명하거나 스트레스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자녀 관계의 질적 개선 및 향상에 도움이 될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이경남, 2004; 이지희·문혁준, 2007; 장진아·신희천, 2006; Grych & Fincham, 1990)의 경우 부부갈등의 주체도 어머니이며, 양육행동의 주체도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자신이 보고한 부부갈등이나 양육행동이 아니라, 아동 즉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나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이나 정서 또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부부갈등의 주체가 아닌 제 3자적 입장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부갈등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라기 보다 부부갈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상이 자녀임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부갈등이라는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명(%)	변 인	구 분	명(%)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12(5.8)	아버지 연령	30세 미만	2(1.0)
	30-35세	115(55.3)		30~35세	55(26.4)
	36세 이상	81(38.9)		36세 이상	151(72.6)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81(38.9)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72(34.6)
	전문대졸	67(32.3)		전문대졸	50(24.0)
	대졸이상	58(27.9)		대졸 이상	81(39.1)
		결측치		5(2.4)	
자녀 나이	만 3세	62(29.8)	자녀 수	1명	35(16.8)
	만 4세	84(40.4)		2명	151(72.6)
	만 5세	62(29.8)		3명 이상	22(10.6)
자녀 성별	남아	99(47.6)	가계 소득	250만 미만	43(20.7)
	여아	109(52.4)		250~350만	65(31.3)
어머니 취업여부	전업	145(69.7)		350~450만	46(22.1)
	취업	63(30.3)		450만 이상	43(20.7)
				결측치	11(5.3)

주) 자녀 성별과 나이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상 유아를 의미하는 것임.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보다 모-자녀 관계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받는다 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김송이·최혜영, 2007; 김정·이지현, 2005)나 결혼 만족도(김기현·조복희, 2000; 박경자·권연희, 2002)와 같이 남편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거나 관계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을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요인(Goldberg, 1990)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있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부정적 감정의 빠른 해소를 위해 충동적 행동을 보이기 쉽다는 연구결과(Chapman et al., 2006) 및 부부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각성 상태가 높아지면 타인을 더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Cumming & Davies, 1994) 등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고는 부부갈등이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부부갈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선행 변인으로 역할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은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기초하고자 한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 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효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셋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각각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보다 감소한 경우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조건 절차에 근거하여 첫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은 부부갈등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는지 둘째,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부부갈등을 통제했을 때 각각 유의하며, 양육 스트레스 통제 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각각 유의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적 측면과 거부적 측면으로 구분해, 가정 환경 맥락에서 경험되는 대표적 대인관계인 부부관계와

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를 인과관계의 매개 과정을 토대로 탐색하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위한 참고 자료 및 부모교육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경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0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 연령은 30~35세 이하가 115명(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연령은 36세 이상 151명(72.6%)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145명(69.7%)으로,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가 81명(38.9%)으로 남편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81명(39.1%)으로 소득은 250-350만원이 65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151명(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3세 자녀를 둔 어머니는 62명(29.8%), 4세 84명(40.4%), 5세 62명(29.8%)으로 남아를 둔 어머니는 99명(47.6%), 여아를 둔 어머니는 109명(52.4%)로 나타났다. 그리고 145명(69.7%)의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척도

1) 부부갈등

O'Leary와 Porter(1980)의 OPS(O'Leary-Porter Scale)를 이용하여 부부갈등 척도를 구성하였다. '돈 문제에 관해 남편과 말다툼을 한다', '남편은 나의 평상시 습관(잔소리, 친구 만나는 것, 물건 잘 잃어버리기, 청소 안하기 등)에 대해 불평을 한다' 등 6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부갈등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6~24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2)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Crnic과 Greenberg(1990)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Daily Hassles Scale)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한다' 등의 양육부담 및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등 유아의 행동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71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8~32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Rohner(1987)의 수용-거부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나은숙과 이종인(2008)의 척도 중 애정과 격려 요인 그리고 적대와 공격 요인의 일부를 사용하여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 했을 때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준다' '아이 생각을 존중하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준다' 등의 애정적 양육행동(7문항)과 '화가 나면 아이에게 화풀이를 한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 아이가 따르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칠게 대한다' 등의 거부적 양육행동(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애정적 .77, 적대적 .78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각각 7~35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또는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조사 절차

대구경북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를 허락받은 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봉투에 밀봉된 질문지를 각 교사에게 배부한 후 유아들에게 교부하여 어머니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1주일 후 재방문하여 직접 수거하거나 방문 시 수거되지 않은 질문지는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응답 자료의 결측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하거나 성의없게 응답한 자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08명의 어머니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5.0프로그램의 단순 및 중회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점 리커트 중

<표 2>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평균

변인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문항수
부부갈등(6문항 4점)	6~22	11.90(2.93)	1.98(.49)
자녀 양육 스트레스(8문항 4점)	8~21	14.00(3.13)	1.75(.39)
애정적 양육행동(7문항 5점)	17~28	23.20(2.29)	3.31(.33)
거부적 양육행동(7문항 5점)	8~27	14.98(2.87)	2.14(.41)

<표 3>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애정적 양육행동		
	B	Std. Error	β	R ²	F값
상수	24.59	.66			4.68*
부부갈등	-.12	.05	-.15***	.02	(df=1, 206)

주) *p<.05, ***p<.001

<표 4>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갈등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인	결과(매개)변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		
	B	Std. Error	β	R ²	F값
상수	10.09	.87			21.34***
부부갈등	.33	.07	.31***	.09	(df=1, 206)

주) ***p<.001

<표 5>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중회귀분석

독립,매개변인	종속변인		애정적 양육행동		
	B	Std. Error	β	R ²	F값
상수	26.04	.84			6.23**
부부갈등	-.07	.06	-.09	.06	(df=2, 205)
자녀 양육 스트레스	-.14	.05	-.20**		

주) **p<.01

부부갈등의 평균(표준편차)은 1.98(.49), 양육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은 1.75(.39)로 나타났다. 한편 지지적 양육행동의 평균(표준편차)은 5점 리커트 중 3.31(.33) 적대적 양육행동의 평균(표준편차)은 2.14(.41)를 나타냈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과 애정적 양육행동간 관계에서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첫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부부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표 3> 참조) 둘째,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표 4> 참조)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통해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부부갈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며, 자녀 양육 스트레스 통제 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첫째, <표 3>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부

갈등에 의해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2$, $\beta=-.15$, $p<.001$).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둘째,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9$, $\beta=.31$, $p<.001$). 즉 부부갈등이 높아지면 자녀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1의 범위에서 그리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10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양병화, 2002)으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종속변인

으로 하고, 부부갈등을 독립변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인을 동시 투입하여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개 변인을 동시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3번째 조건 중 완전 매개 효과를 만족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애정적 양육행동간 매개 관계의 경로모형을 <표 3>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1>로, <표 4>와 <표 5>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2>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애정적 양육행동간 매개 관계의 경로모형을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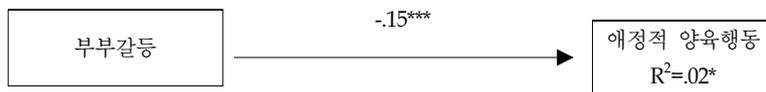
<연구문제 2> 부부갈등과 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에서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첫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부부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표 7> 참조) 둘째,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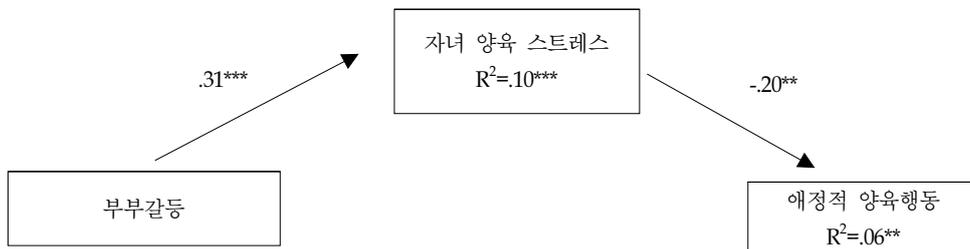
(<표 4> 참조)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통해 셋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부부갈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며, 자녀 양육 스트레스 통제 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표 8 참조). 첫째, <표 7>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부부갈등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0, \beta=.32, p<.001$). 즉, 부부갈등이 높아지면 적대적 양육행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둘째,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9, \beta=.31, p<.001$). 즉 부부갈등이 높아지면 자녀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91의 범위에서 그리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10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양병화, 2002)으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부갈등을 독립변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변인



<그림 1>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애정적 양육행동간 관계



<그림 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간 관계

<표 6>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 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부갈등 → 자녀 양육 스트레스	.31	.31	-
부부갈등 → 애정적 양육행동	-.15	-	-.06
자녀 양육 스트레스 → 애정적 양육행동	-.20	-.20	-

<표 7>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단순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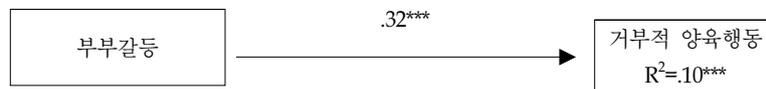
독립변인	종속변인		거부적 양육행동		
	B	Std. Error	β	R ²	F값
상수	11.30	.80			22.73***
부부갈등	.31	.07	.32***	.10	(df=1, 206)

주)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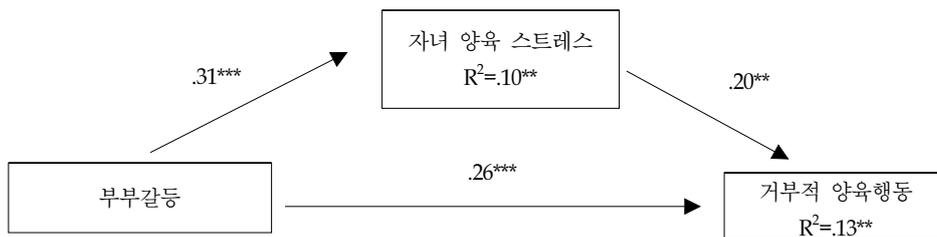
<표 8>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중회귀분석

독립, 매개변인	종속변인		거부적 양육행동		
	B	Std. Error	β	R ²	F값
상수	9.48	1.00			15.89***
부부갈등	.25	.07	.26***	.13	(df=2, 205)
양육 스트레스	.18	.06	.20**		

주) **p<.01, ***p<.001



<그림 3>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그림 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간 관계

<표 9>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부갈등 → 자녀 양육 스트레스	.31	.31	-
부부갈등 → 거부적 양육행동	.32	.26	.06
자녀 양육 스트레스 → 거부적 양육행동	.20	.20	-

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거부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인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거부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유의성이 유지된 채 그 힘이 약화되었다. 즉 <표 7>에서는 부부갈등의 설명력이 32%였던 것($\beta=.32$,

$p<.001$)에 비해 <표 8>에서는 그 설명력이 26%($\beta=.26$, $p<.001$)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3번째 조건 중 부분 매개 효과를 만족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거부적 양육행동간 매개 관계의 경로모형을 <표 7>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3>으로, <표 4>와 <표 8>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4>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거부적 양육행동간 매개 관계의 경로모형을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 지역의 만 3, 4,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를 매개 모형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부갈등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표 3>의 연구결과(Baron과 Kenny의 1단계 과정)를 통해,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표 4>의 연구결과(Baron과 Kenny의 2단계 과정)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사라진다고 보고한 <표 5>의 연구결과(Baron과 Kenny의 3단계 과정)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표 3>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덜 애정적이며 수용적이라 보고한 연구결과(강차연, 장연집, 1998; 이지희, 문혁준, 2007; 장진아, 신희천, 2006)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부갈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부간 문제에 몰입함으로써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애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4>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높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질 경우 자녀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연구결과(Goldberg, 1990)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 및 양육에 대한 남편의 참여 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과 관계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기현, 조복희 2000; 김정, 이지현, 2005; 박경자, 권연희, 2002)와 유사한 것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부갈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 성가심, 짜증스러움이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한편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이 통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완전 매개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나는 간접적 영향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인정, 수용, 긍정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부부갈등이 높아짐으로써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갈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될 때 비로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모-자녀관계의 질에 의해 보다 더 영향받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은 거부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거부적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표 7>의 연구결과(Baron과 Kenny의 1단계 과정)를 통해,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표 4>의 연구결과(Baron과 Kenny의 2단계 과정)를 통해 그리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한 <표 8>의 연구결과(Baron과 Kenny의 3단계 과정)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거부적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표 7>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통제적이거나 거부 제재적(정미경, 김영희, 2003; Dadds & Powell, 1991; Davies & Cummings, 1994; Fincham, Grych, & Osborne, 1994)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거부적 양육행동의 경우 <표 7>에서와 같이 부부갈등에 의해 10%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의 결과를 보면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부갈등에 의해 2%정도 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성별과 부부갈등이 애정적 양육행동을 8% 설명하는 것에 비해 통제적 양육행동은 19%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경님(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이 애정적 양육행동보다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질이 모-자녀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하지만,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모-자녀관계의 질을 위협하기보다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킴으로써 모-자녀관계의 질을 위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되었을 때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이 통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적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거부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대부분 직접적이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어느 정도 부분 매개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나는 간접적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라는 사실과 구분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울음이나 까다로움에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Crockenberg & Leerkes, 2003; Leerkes & Crockenberg, 2006)함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와의 관계 갈등은 자녀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Goldberg, 1990)하게 함으로써 더 거부적이고 더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거부적 양육행동은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모자녀 관계의 질보다,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가정 환경 맥락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대표적 대인관련 스트레스인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살펴본 이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양육행동을 함에 있어 부부간 노력이 보다 요구됨을 제안하고 있다. <표 6>과 <표 9>의 경로모형 분할표에서 기술된 것처럼 양육 스트레스가 애정적 그리고 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각각 2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반면 애정적 그리고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전체효과는 각각 15%와 3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부적 양육행동이 애정적 양육행동보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나 사회적 기술 부족, 비행 청소년과의 어울림 등 아동의 부적응에 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Brody et al., 2001; Pettit et al., 1997; Rohner et al., 2005)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관계에서의 아동의 성공적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정 환경 맥락내 어머니의 대인관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 남편의 성격 등 부부갈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남편 관련 변인 그리고 자녀의 기질, 자녀의 수, 자녀의 성 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관련 변인 등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연구결과의 정교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적 양육행동과 함께 아동의 (부)적응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강차연·장연집(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 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김성일(1996). 부모의 수용도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 연구**, 3(1), 67-105.

김송이·최혜영(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나은숙·이종인(2008). 부모의 자녀수용-거부와 통제 척도에 대한 한국 타당화 검사: 유아 부모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3), 215-247.

박경자·권연희(2002). 문제 해결을 위한 모 - 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님(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이주리(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2), 57-71.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이지희·문혁준(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 장진아 · 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장희정(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점구 · 김교현(2003). 한국 주부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 1-39.
- 정미경 ·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 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 회지**, 41(8), 123-137.
- 최정미 · 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Baldwin, A. L.(1948). Socializ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19, 127-13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rody, G. H., Conger, R., Gibbons, F. X., Ge, X., McBride M. V., Gerrard, M., & Simons, R. L.(2001). The influence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collective socialization, and parenting on African American children's affiliation with deviant peers. *Child Development*, 72, 1231-1247.
- Buehler, C. & Gerard, J. M.(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8-92.
-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 Crockenberg, S. C. & Leerkes, E. M.(2003). Parental acceptance,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sensitivity: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80-93.
- Crnk,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mmings, E. M. & Davies, P. T.(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Y.: Guilford.
- Dadds, M. R. & Powell, M. B.(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8.
- Leerkes, E. M. & Crockenberg, S. C.(2006). Antecedents of mothers' emotional and cognitive responses to infant distress: The role of mother, family, and infant characteristic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7, 405-428.
- Fauber, R. J. & Long, N.(1991). Children in context: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oldberg, W. A.(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6, 531-556.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rold, G. T., & Conger, R.(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Porter, B., & O'Leary, K. D.(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Ritchie, K. L. & Holden, G. W.(1998). Parenting stress in low income battered and community women: Effects on parenting behavi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9, 97-112.
- Rohner, R. P.(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A worldwid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New Haven, CT: HRAF Press.

Rohner, R. P.(1987).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school conduc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youth in a biracial southern community*. Unpublished data.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E.(2005). Introduction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R. P. Rohner & A. Khaleque(4th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pp. 1-35).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35.

Straus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Symonds, P. M.(1939). *The psychology parent-child relationship*. N.Y.: Appleton-Century-Crofts.

Whipple, E. E., & Webster-Stratton, C.(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and Neglect*, 15, 279-291.

접수일 : 2009년 09월 12일

심사일 : 2009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07일